本工事가 着手됨에 監督官室에 申榮勳、孫龍文 兩氏와 氣象擔當으로 朴茂水諸氏가 新任되었다。

五、來訪人士

6/2 軍事停戰委員會 首席代表Bloud少將 中立國 瑞典 瑞西代表 6/6 全南大學校事務局長 羅智網 高相烈兩氏 6/8 Ehaneal에쿠아들(Ecuador)大使 夫妻 6/9 鄭文化財管理局長 黃壽永 柳海宗兩監督官 6/10 大邱啓明大學 申泰植學長 慶北大學 李鍾恒敎授 黃東奎 劉在奉 兩文社委專門委員 6/17 黃壽永 6/23 針谷正之 掘泰三兩日本外務省 6/30 黃壽永 申榮勳 7/1 李文化化財課長 慶博長 7/2 林泉 7/7 慶北大博 尹容鎭

光州有銘石燈

鄭 永 鎬

—第四卷 第八號 通卷三十七號—

지난 四月二十一日 同人文甲洙氏와 함께 光州市 全南道廳後庭 ①에서 石燈一基를 調査한 바 ②있다。이 石燈에 關하여는 「朝鮮金石總覽」上卷에 「光州邑內石燈記」③가 있을뿐 그 形態와 石材 等에 對하여 記錄이 없다。한편 여기에는 誤讀이 있고 筆者가 調査時에는 當初보다 더 많이 判讀할 수 있었기에 石燈의 現狀과 記錄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花崗

金銅半跏思惟像
(H 17.5㎝)
平壤市 平川里出土(1940年 4月)
서울特別市 金東鉉氏 所藏

石材로서 現在는 到壞되어 自然石들 틈에 散在하는데 八角下臺石은 埋沒되어 上面만이 보이고 八角竿柱와 그위 八角仰蓮中臺石과 火舍石 屋蓋 等 副材는 모두 現在하여 復元이 可能하다。中臺石은 上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을 마련하였으며 蓮瓣의 手法이 豊麗한데 下臺는 磨損이 甚하다。火舍石과 屋蓋는 通式이고 相輪部는 없으며 蓋頂에는 徑一〇㎝의 圓孔이 있다。竿柱에는 八面마다 外廓線이 있고 그안에 큼직한 楷書의 銘文이 一行陰刻되었는데 九 或은 十字씩으로서 다음과 같이 判讀되었다。

六之迷倫三途滯碑塔?? 」 刹之願薩軀一座令者」 棟梁朱善消?皆□□修洋?」□
後證菩薩之□□□」 菩(以下缺)」「卄(以下缺)」「(缺) 五?」釋?(以下缺)」

以上에서 建立年代를 찾지 못한 것은 遺憾된 일이나 앞으로 調査에서 더욱 많이 判讀될 것을 期待한다。年代는 蓮瓣의 手法이나 竿柱 및 陰刻文 等으로 보아 麗初로 推定된다。이와같이 竿柱에 陰刻銘이 있는 遺例는 羅州西門石燈(寶物第三六四號)에서 볼 수 있는 稀貴한 바인데 이렇듯 貴重한 遺品이 하루 速히 復元되어 當局으로 부터의 保護施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實測値는 (單位㎝)下臺石(徑 六〇、一邊長 二八) 竿柱(高 八八、徑三三、一

邊長八、字徑八) 中臺石(一邊長三〇 厚 三〇) 火舍石(高 四六 一邊長二三) 屋蓋(一邊長 三〇 厚 二八) 復元하면 高二m餘로 推定

註

① 本時 光州南門에 있었던 것을 日帝時道知事官舍前庭에 移置하였으나 이곳 火災後 官舍는 옮겨지고 石燈은 到壞된채 現位置에 遺存한것임(全南文化財委 노석경氏談話)

② 이에 對한 調査는 一九六二年十二月二九日 同人孟仁在、申榮勳、文甲洙와함께 着手했으나 結氷으로 이루지 못하여 今年四月에 再調査한 것임。

③ □三□□□三途滯□□」 刹□□□□ 一座□ 者」 □□□□□□□□修□」 再後燈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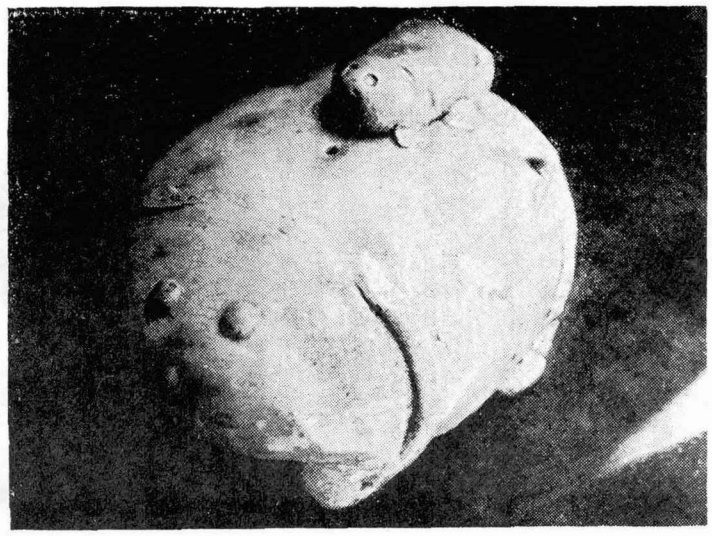
李朝母子蟾蜍硯滴

崔 淳 雨

우리나라 在來의 文房 淸玩品中에서 李朝硯滴처럼 特色있는 것은 없다。 그 種類가 多樣할뿐 더러 그 하나 하나의 品格이 우리 사람들의 風度와 生活情緖를 이모저모로 너무나 잘 엿보여주는것 같아서 누구나 親近해지기가 쉬웁다고 하겠다。

日前에는 李相佰敎授가 愛藏하는 두꺼비 母子硯滴을 賞玩할 機會가 생겨서 뜻아니 한 眼福을 누렸는데 그 어딘가에 반드시 있음직한 逸品이 역시 이렇게 남아 있었고나하는 느낌이 깊었다。

이 硯滴을 보느라면 참 지지리도 못생긴 너로구나 하고 고만 失笑를 禁할 수 없을 지경이고 게다가 넘죽이 앉은 에미 등뒤에 시치미를 떼고 의젓이 업혀있는 꼬마 두꺼비가 한층 미소를 자아내 준다。 기장이 一二·八cm 폭이 一〇·三cm 높이가 六·八cm가 되는 말하자면 연적으로서는 비교적 큰 칫수 인데다가 꼬마두꺼비를 업고있는 異例의 作이라는 點과 아울러 李朝硯滴으로서는 드물게 보는 逸品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에미두꺼비에 比해서 새끼두꺼비가 이렇게 적지 않았던들 자칫 점잖치 못하게 보일 염려가 있었겠고 또 제딴엔 점잔은 두꺼비의 威嚴을 보이느라고 버티고 앉았더라도 失望할 뻔했지만 턱을 땅에대고 웅승그린 점에 두꺼비다운 우직하고도 혜식은 美德이 서려있다고 할까

몸둥이는 손으로 떡빚듯 그저 넘죽이 빚어내었고 네발은 손으로 비빈 가는흙 타레를 등으로부터 띄처럼 부쳐내려 갔으며 두눈은 녹두알 쪼개만한 흙고물을 빚어 부친 것이 어데까지나 잔재주를 부리지 않은 품이 있어서 좋다。 둥글게 타원형을 이룬 배바닥 素地를 그대로 남긴 外에는 등으로부터 帶靑灰白色의 粉靑系 透明釉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씌워져 있어서 이 硯滴의 古格을 말해주고 있으며 아마도 이 硯滴은 壬辰前으로 올라갈 것만 같다。 큰 두꺼비의 등 한복판 즉 꼬마 두꺼비의 턱밑에 적은 피조알만한 구멍이 뚫려서 氣孔을 이루었고 물구멍은 제대로 한다면 에미두꺼비의 혜석은 입 한가운데 뚫려 있을법도한데 其實은 두 코구멍중에 오른 코구멍하나를 물구멍으로 마련했으며 왼코 구멍은 適當히 흙고 물로 트러막은 자취가 보여서 아무래도 미구에 근사한 재치기를 한번 할것만 같다。 李朝時代의 두꺼비 硯滴은 그例가 적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類品을 본 일도 있고 또 文人들이 詩에도 두꺼비연적을 禮讚한 句節이 間或 있는